

“세계 수묵작가, 전주한지에 담는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국제적수묵수다방’ 행사에 한지장인이 직접 제작·생산한 한지 500여장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2018 국제수묵비엔날레의 사전 프로그램인 국제수묵 레지던시 ‘국제적수묵수다방’ 행사에 한지장인이 직접 제작·생산한 전주한지 500여 장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수묵레지던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윤림산방에서 열리는 2018 국제수묵비엔날레에 앞서 사전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국내외 25명의 작가는 오는 9월 9일까지 작가들은 목포 원도심에 모여 작품 활동을 벌이고 상호 작품 공유 및 전시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오는 30일에는 전주한지에 그려진 작품을 전시하는 오픈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작가에게 제공된 전주한지는 김천종(70·전일한지), 강갑석(64·전주전통한지원), 김인수(61·용인한지), 최성일(51·성일한지) 등 전주한지장(韓紙匠) 4명이 직접 제작한 한지다.

이번 전주한지 제공은 지난해 전주한지장인과 수묵 작가와의 만남 세미나에서 시작했다. 당시 토론에서 수묵 작가들은 목이 잘 스며들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서부터, 한지 두께, 크기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주한지장인들은 다양한 한지를 제작한 뒤 이번 행사에 500여 장을 제공했다.

참여 작가들은 닥의 원료 함량이 다양하게 포함된 소재의 한지뿐 아니라 다양한 두께와 크기의 한지를 받은 것은 물론 각각 선호하는 전주한지를 선택해 작품을 제작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작가들의 전주한지 제공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 소재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토대로 전주한지의 활용성을 모니터링, 이후 한지제작에 소중한 데이터로 재활용한다



국제수묵레지던시 ‘국제적수묵수다방’ 행사 자료사진

는 방침이다.

강병구 전당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국제수묵 레지던시는 전주한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좋은 기회”라며 “작가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전주한지 홍보의 밑거름이 돼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김영남 작가가 사람과 자연의 소통, 선한 바람의 색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28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마음까지 따뜻하게 물들인다’

김영남 작가 천연염색 개인전 내일까지

고창군 무장출신인 김영남 작가가 사람과 자연의 소통, 선한 바람의 색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김영남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문화적 소통으로 서로 상생 교류하여 상생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초

석으로 만들며, 천연염색을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예술문화를 서로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남 작가는 자연애 천연염색 문화공간 대표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선생 이수자이고, (사)한국천연염색지도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 별세, 사물놀이 산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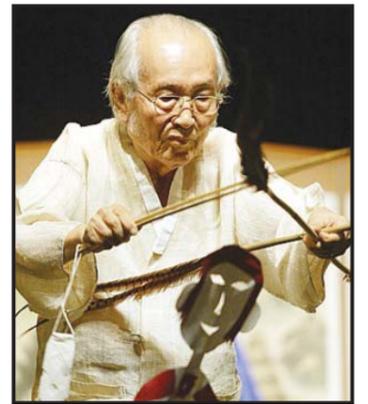
민속학자 심우성(84) 선생이 지난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충남 공주 태생인 고인은 1954년부터 KBS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민속학자 임석재 선생의 제인으로 민요 채록의 길에 들어섰다.

1950년대부터 남사당패에 관심이 많던 그는 1966년 극단 ‘서남당’을 창단했다. 민속극 연출자로 활동하며 ‘1인극 대가’로 이름을 날렸다. 1987년 아시아인극협회를 만들었다. 1988년 서울 바탕골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회 아시아인극제를 열었다. 이 연극제는 1996년부터 매년 공주에서 따로 열며 명칭도 ‘공주 아시아 1인극제’가 됐다.

1970년대 공연예술의 발화점으로 통하는 소극장 ‘공간사람’에 연출가 겸 공연기획자로도 참여했다. 무엇보다 ‘사물놀이’의 산파로 통한다. 이 명칭을 창안했다. 사물놀이는 1978년 2월 소극장 ‘공간사람’에서 남사당패인 김덕수, 이광수, 최홍실, 김용배 등 4명이 만들어냈다.

장구, 북, 징, 팽과리 등 4가지 악기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이들의 공연을 심 선생이 ‘사물놀이’로 명명해줬다. 그는 앞서 연주하는 형식도 만들어냈다. 마당에서 펼치던 남사당놀이가 실내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는 공연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 사물놀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인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장, 공주민속극박물관장, 한국민속극 연구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남사당패 연구’ ‘한국의 민속극’ ‘민속문화와 민중의식’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인형’ ‘전통문화를 찾아서’ ‘민속문화 길잡이’ ‘굿·춤·소리를 찾아서’ 등이 있다. /뉴스

“방짜유기 특별전 보러오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서 내달 2일까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짜유기의 맥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장인의 혼을 담은 특별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43호 방짜유기장 이종덕 명인의 방짜유기 특별전을 오는 9월 2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당은 수천 번의 메질로 빛을 쬐는 전주 방짜유기 기술이 전통의 맥을 잇는 중요한 전주 수공예의 유무형 유산이라 판단, 이종덕 명인의 작품을 특별전으로 기획했다.

이번에 전시된 50여 점의 작품은 기존 그릇의 모양 외에도 오랜 시간 두드려가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 명인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방짜유기의 제작 과정과 제작 도구를 함께 전시, 방짜유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도 구성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방짜유기는 유기의 종류 중 가장 질이 좋은 유기로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합금해 거푸집에 부은 다음 1300도가 넘는 불에 달궈가며 수천 번의 망치질로 두드려서 만든 그릇이다.

이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방짜유기는 휘거나 잘 깨지지 않으며 사용할수록 윤기가 나고 그 가치가 더해진다.

특히 은은한 광택이 뽀뽀 있고 고급스러우며, 견고하고 탁월한 보온·보냉 효과를 내는 데다 음식에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으면 검게 변하는 특성으로 예부터 ‘생명의 그릇’이라고



도 보였다.

전당 관계자는 “1960년 들어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대거 유통되며 무겁고 변색이 심해 관리가 힘든 유기그릇들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면서 “이 명인은 끊겼던 전주의 맥을 잇기 위해 1970년 후반부터 다시 그 위상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꾸준히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